혁신위원장 매듭 풀까… 민주당 '운명의 일주일'

지도부, 이래경 낙마 후폭풍에 '탈계파' 학자 출신 등 신중에 신중
김태일·정근식·김은경 등 후보군 거론…상임위원장 교체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혁신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선임 등을 마무리지으며 뒤엉킨 계파 간의 갈등을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혁신위원장은 계파 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 선임이 과제며, 상임위원장 인선은 행안위원장 자리 고수에 나선 정청래 최고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사퇴한 '사태'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분이 가라앉을지 악화 일로를 걷게 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지난 대선 당시 이 이사장이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거론, 이 대표가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를 꾸리려 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직후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사퇴'를 더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이 이사장처럼 진보 진영에 몸담은 활동가 대신 계파 논리에서 자유롭고 극단적 성향을 배제한 학자 출신이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친명 혁신위' 논란에서 비껴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전 총장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 교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와 김 교수(금융감독원 부원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을 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원장 선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여파가 오랠 갈 가능성이 높다"며 "혁신위원장 선임이 이뤄지더라도 공천 룰 등을 둘러싼 혁신의 내용과 폭을 놓고 친명과 비명계의 충돌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더해 '정청래 사태'로 불리는 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 6곳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표결 직전 긴급히 보류했다.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또는 지도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기득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장 내정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선출 보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정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을 맡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직 '교통정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당직과 국회직 겸임 금지, 전·현직 지도부 및 전직 장관 제외 등의 새로운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이 강성 성향 당원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반발을 이어간다면 내분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보류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10 민주항쟁 기념식' 지난 10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민주路 – 같이 걸어온 길, 다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스님(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광야에서'를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양육·보육·교육 환경 조성이 저출생 정책 핵심"

SNS에 메시지…"낳을수록 떡하나 더 주겠다는 식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언제 어디서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 보육,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저출생 정책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주겠다는 식으로 저출생 극복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예계 대표 다둥이 가족으로 유명한 방송인 정성호 씨가 JTBC 뉴스에 출연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영상을 공유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는 질타에 몸 둘 바 모르다가,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치는 저를 발견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5남매 다둥이 아빠 코미디언 정성호 님께서 탁상공론식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다"며 "하나 낳고 보니 키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다는 정성호 님의 말씀에도 너무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기가 생기면 회사 눈치 봐야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라며 "초등학교 근처에 유흥업소가 있는데 아이 키울 마음이 생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무거운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저출생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 희생 아닌 축복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경찰 조사

국정원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 서 전 실장의 자택과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한 지 17일 만이다. 서 전 실장은 8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오후 6시께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씨를 채용하기 위해 전략연 인사·복무규칙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외부인사 채용 개방은 연구원의 쇄신 발전을 위한 폭넓은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규정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회의원 보좌진이었던 측근 2명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측근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의원, 광산고 신설 주민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11일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9일 '하남행정복지센터'에서 '(가칭)광산고 신설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27년 옛 하남초 폐교부지에 신설될 예정인 광산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인 광산구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숫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과 고교 원거리 배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광산구 학생 700여 명 정도가 북구나 서구로 원거리 배정을 받았다. 18학급(504명) 규모인 광산고가 2027년 개교하면 구민들의 원거리 배정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설명회에서는 박준수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이 '광주고 신설 추진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또 최성광 정책기획팀장이 광산구 교육정책을 안내했다. 광산 주민들은 광산교육지원청 복원·광산교육특구 지정 등 광산 교육 현안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광산구청장 때부터 광산구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구 하남초 폐교부지에 고등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산고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다행히 교육부가 지난 5월26일 광주시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 광산고 신설에 따른 예상사업비는 297억 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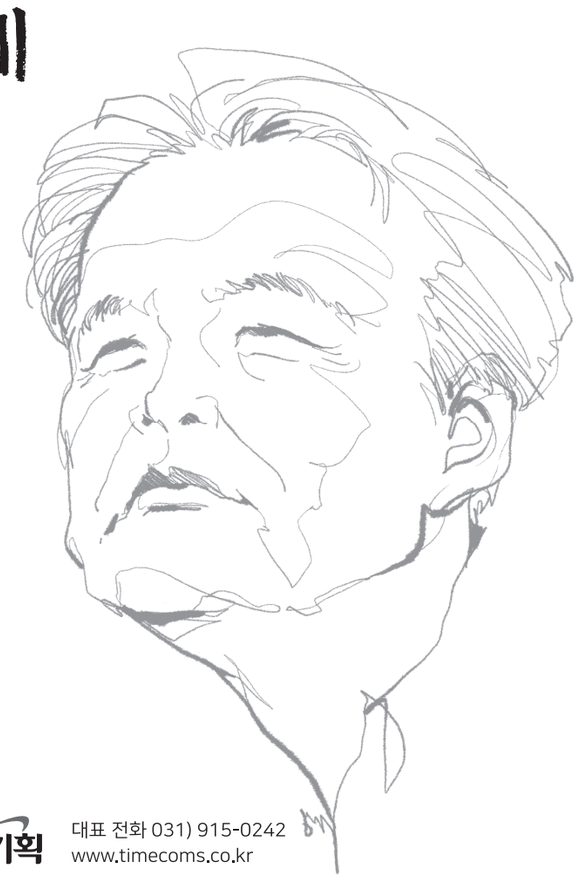
떨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